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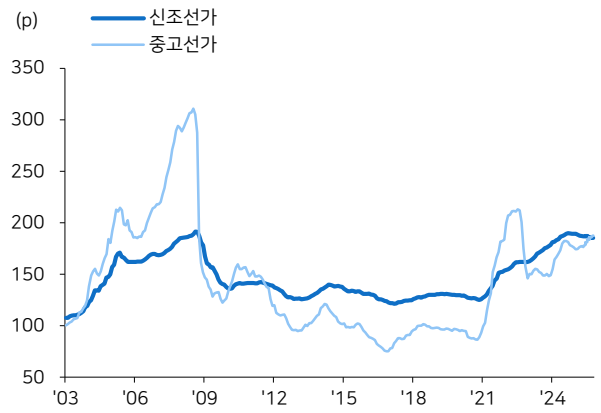
meritz 항해일지

2025. 10. 21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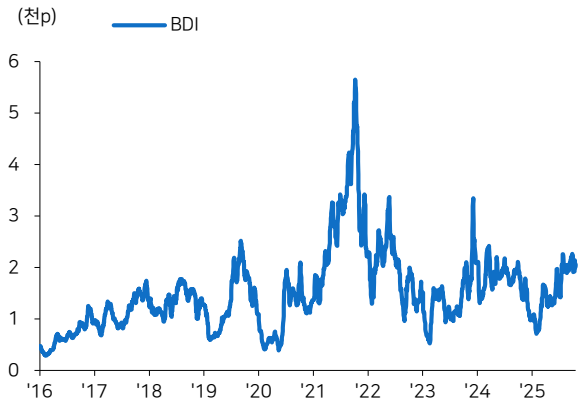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3p(+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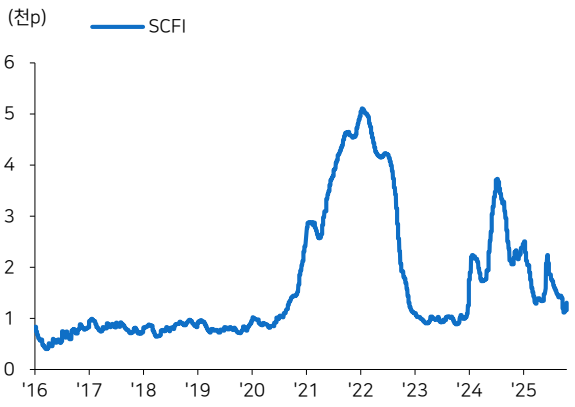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4.0달러(-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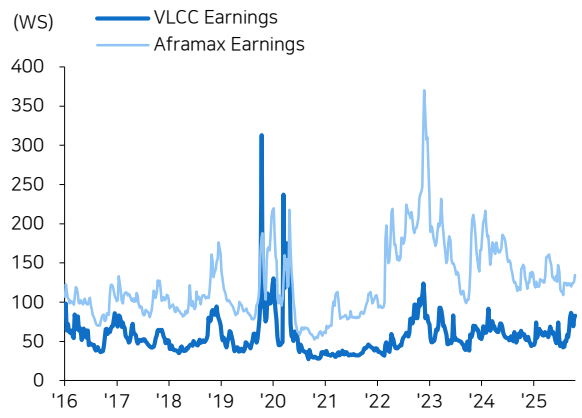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71.0p(+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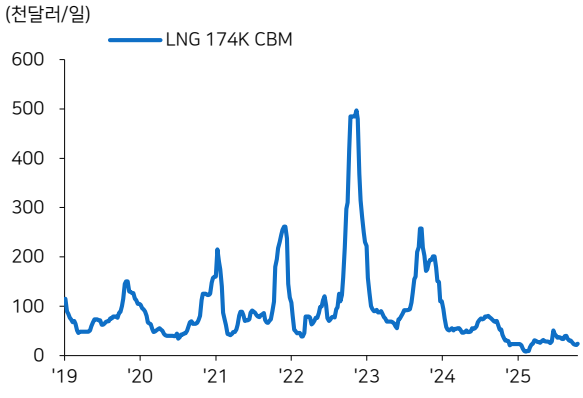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10.4p(+149.9p WoW)



VLCC Spot Rate 82.5WS(+2.1p WoW)



LNG Spot 운임 24.0천달러(+3.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정부, 내년부터 '마스가' 상징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3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가동해 조선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보도됨. 이는 AI 자율운항선박과 무인조선소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신뢰도 평가 및 검 · 인증 기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전해짐. 아울러 내수면 자율운항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AI 로봇 · 자동차 · 드론 등 주요 산업 전반에 대한 예산 · 세제 · 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연합뉴스)(https://buly.kr/CB5SWze)

HD Hyundai yard inks VLCC newbuildings worth close to $256m

HD한국조선해양이 국내 해운사로부터 약 3,633억 원 규모의 VLCC 2척을 수주했으며, 업계에서는 발주처가 HMM으로 알려짐. 이는 HMM이 최근 발표한 12척의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및 2척의 VLCC 발주 계획의 일환으로 전해짐. 이번에 발주된 30만DWT급 VLCC는 HD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아 2027년 하반기 인도될 예정이며, 컨테이너선 12척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분담해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짐. HD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연간 목표의 70% 이상을 달성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https://buly.kr/5fDQLeC)

Dark fleet LNG carriers line up to transship Russian cargo off Malaysia

제재 대상 러시아 LNG 화물을 실은 170,200㎥급 Perle호와 145,000㎥급 CCH Gas호가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서 환적을 준비 중임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보도됨. Perle호는 러시아 Portovaya LNG 플랜트에서 LNG를 적재해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아시아로 이동했다고 전해짐. 한편 러시아는 또다른 제재 대상 액화시설인 Novatek의 Arctic LNG 2플랜트에서 9건의 LNG를 중국으로 수출한 바 있으며, 북극항로를 통과하거나 아프리카 경유 항로를 이용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https://buly.kr/5q8BL4m)

EU moves to confirm phase-out plans for Russian gas and LNG by end of 2027

유럽이사회가 REPowerEU 로드맵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LNG 수입을 2028년 1월 1일까지 전면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의 단계적 폐지안을 마련한다고 보도됨.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산 가스는 2026년부터 신규 수입이 금지되며, 기존 계약은 단기 2026년 6월 17일, 장기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과도기가 설정됐다고 전해짐. 혼합 LNG의 경우 러시아산 비중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가스 공급 다변화 방안을 담은 국가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짐. (TradeWinds)(https://buly.kr/C0AhYEv)

Flourishing FLNG: Sector thrives on cost and security advantages

부유식 천연가스 액화(FLNG) 산업이 낮은 투자비와 빠른 상업화 속도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글로벌 LNG 공급의 약 6%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Golar LNG, Eni 등 주요 기업들이 아르헨티나 · 콩고 · 모잠비크 등에서 신규 FLNG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아프리카는 전체 신규 용량의 56%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고 알려짐. Wood Mackenzie에 따르면 표준화 · 모듈화 설계와 재배치 가능성이 FLNG의 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으로 전해짐. (Upstream)(https://buly.kr/2feXgBN)

Shipowners face radical rethink after collapse of historic green deal

IMO의 글로벌 탄소부과금 도입이 무산되면서 선주들이 유럽연합을 비롯한 지역별 탄소가격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보도됨. 유럽 노선 비중이 낮은 선주들은 무배출 선박 투자를 미루는 반면, 친환경 선박은 비용 절감을 위해 유럽 항로에 집중될 전망으로 전해짐.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1년 연기안 통과로 IMO 계획이 지연되자 터키 · 지부티 · 가봉 등은 자체 탄소세 제도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해운 시장의 지역 단편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https://buly.kr/H6ig79A)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